

KMI 북방물류리포트

VOL.195
NOV 5 2021

발간년월 2021년 11월 5일(통권 제195호)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(동삼동)
 발행인 김종덕 총괄 이주호 감수 최재선 담당 김엄지·유지원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
 자료문의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·극지역구실 TEL +82-51-797-4776 FAX +82-51-797-4659



주요 동향

- 러, 내년부터 고속도로에서 화물 무인 트럭 시범 운행
- 러시아, '나진-하산' 프로젝트재개는 한·북·러에 이익
- 러시아, 자바이칼 선도개발구역에 LNG 환적단지 조성
- 러시아 극동 항만 체선 현상, '중국 춘절' 이후 정상화
- 러시아 철도 현대화 사업으로 운행 구간 화물량 증가
- 야쿠티야 공화국, '크리에이티브 클러스터' 집중 육성
- 러 렘스탈, 소비에트카야 가반 항만에 LPG 환적 터미널
- 러시아, 수산업 현대화 ... 해상 가공 어선 100척 건조

주요 통계

- 2021년 9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(건·액체화물)
- 2021년 8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출입 품목 규모
- 2021년 8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입 규모



주요 동향



러, 내년부터 고속도로에서 화물 무인트럭 시범 운행

그림. 안텍스의 화물운송용 무인이동장치



자료: <https://1prime.ru/transport/20211103/835114286.html>

■ 러시아 정부는 M-11 도로를 따라 무인트럭을 시범 운행할 수 있도록 승인^{a)}

- 러시아 정부는 수도 모스크바와 서부 유럽지역의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연결하는 M-11 'Neva' 고속도로(660km)에서 자율주행 무인트럭이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승인했음^{b)}
- 이 같은 조치는 러시아 연방 제1부총리의 결의안에 따른 것으로, 이에 따라 경제부는 2022년 2월까지 자율운행 자동차 출시에 관한 정부 법령 등을 준비하도록 되어 있음

■ 개발업체인 BaseTrack은 무인 제어시스템을 기반으로 화물 운송기술 개발^{c)}

- 이 회사는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Mercedes-Benz Actros 1845 트럭 9대를

주문했으며, 올해 11월 초 트럭에 대한 인증을 받은 후 2022년부터 M11에서 시범 운행에 들어갈 계획임

- 베이스 트랙이 개발한 무인 시스템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가속, 조향, 제동, 속도 등을 제어할 수 있음

■ 교통부는 2030년까지 러시아-아시아 연결도로에도 무인 트럭 운행 추진^{a)}

- 현재와 같은 일정대로 추진될 경우 M-11 고속도로에서 시행하는 자율운행 화물운송 시범 사업은 2022년부터 본격 시작할 것으로 예상됨
- 러시아는 2024년부터는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잇는 전체 고속도로에서 해당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를 시작할 계획이며, 2030년까지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도로를 따라 자율운행 트럭이 주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할 계획임
- 교통부는 디지털 교통물류협회와 공동으로 ‘물류 루트의 무인화’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‘디지털 샌드박스’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, 현재 이 사업에는 2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를 신청한 상태임
- 그 가운데 한 업체가 얀덱스(Yandex) 로봇 택시이며, 드론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프로젝트 또한 진행 중임

김엄지 연구원,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·극지연구실
(umjikim@kmi.re.kr/051-797-4776)

참고자료

- a) <https://1prime.ru/transport/20211103/835114286.html>(2021.11.3.검색)
- b) [https://www.rzd-partner.ru/auto/news/trassa-moskva-peterburg-budet-gotova-dlya-gruzovykh-bespilotnykh-perevozok-k-2024-g/\(2021.11.3.검색\)](https://www.rzd-partner.ru/auto/news/trassa-moskva-peterburg-budet-gotova-dlya-gruzovykh-bespilotnykh-perevozok-k-2024-g/(2021.11.3.검색))
- c) [https://trends.rbc.ru/trends/industry/61419af89a79470ada2d3912\(2021.11.3.검색\)](https://trends.rbc.ru/trends/industry/61419af89a79470ada2d3912(2021.11.3.검색))

러시아, ‘나진-하산’ 프로젝트 재개는 한·북·러에 이익

그림. 극동북극개발부 장관



그림. 나진-하산 프로젝트(2015)



자료: <https://1prime.ru/transport/20211103/835114286.html>; <https://hanber.livejournal.com/2831586.html?page=1>

■ 극동북극개발부 장관은 초국경 물류 프로젝트 재개에 남북한과 협력을 기대

- 나진-하산 프로젝트는 북한의 나진항을 통해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컨테이너와 원자재를 운송하는 내용의 사업임
- 최근 극동북극개발부 장관은 2016년 북한의 핵실험으로 해당 프로젝트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, 3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
- 2007년 러시아 철도청 사장은 러시아가 북한 철도의 현대화와 나진항의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에 참여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
- 2008~2014년에는 하산역에서 나진항까지 철도가 복구되었는데, 이 사업은 남북철도 재건사업의 첫 단계 프로젝트로 평가되었음

김엄지 연구원,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·극지연구실
(umjikim@kmi.re.kr/051-797-4776)

참고자료

- a) <https://seanews.ru/2021/11/03/rossija-predlozhila-vozobnovit-proekt-hasan-radzhin/>(2021.11.3.검색)

러시아, 자바이칼 선도개발구역에 LNG 환적단지 조성

그림. 러시아 자바이칼 건설작업 현장 준비 모습



자료: <https://1prime.ru/transport/20211103/835114286.html>

■ ‘국제터미널 자바이칼스크(Zabaikalsk)’사가 LNG 환적 및 저장단지 조성 추진^{a)}

- 해당 프로젝트는 예정보다 2년 앞당겨 추진될 예정이며, 건설사업에 3,100만 루블 이상 규모가 투자될 것임
- 이 사업을 추진하는 ‘국제터미널 자바이칼스크(Zabaikalsk)’사(社)의 경우 선도개발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, 5년 동안 재산세 및 소득세 면제 혜택이 주어지며, 10년동안 보험료를 7.6% 할인받을 수 있음
- ‘국제터미널 자바이칼스크(Zabaikalsk)’사(社)는 유리한 지리적 위치, 중국과의 경제적 강화 가능성 때문에 자바이칼에 선도개발구역에 사업을 선정했음
- 현재 러시아 자바이칼 선도개발구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는 모두 30개 사업이며, 총 투자 금액은 약 2,000억 루블에 달함
- 한편, 러시아 남부 지역의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자바이칼 주는 2018년에 러시아 극동연방관구에 편입되었음

김엄지 연구원,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·극지연구실
(umjikim@kmi.re.kr/051-797-4776)

참고자료

- a) <https://www.eastrussia.ru/news/logisticheskiy-kompleks-dlya-perevalki-spg-otkryli-na-tor-zabaykale/> (2021.11.4. 검색)

러 극동 항만 체선현상, ‘중국 춘절’ 지나야 정상화

■ 머스크 사장은 러시아 극동 항만이 ‘중국 춘절 이후’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²⁾

- 덴마크의 대표적인 글로벌 해운회사인 머스크 라인(A.P. Moller Maersk)은 최근 블라디보스토크 항만(VMTP, FESCO 운송 그룹의 일부)과 함께 현재 체선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항만의 선박 운항을 정상화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수립했음
- 그에 따르면 러시아 극동 항만의 정상화는 중국 춘절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,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반면, 공급이 제한되어 있어 운임은 당분간 변동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- 또한, ‘보스토치니항 회사’(Global Ports의 일부, 연해주)는 머스크 라인의 선박이 매주 운항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장했음

■ 러시아 극동 항만과 부산항도 최근 컨테이너 물류가 정체되는 문제가 발생

- 최근 러시아 극동 항만의 혼잡 문제는 발트해 연안 지역보다 운임이 저렴하여 대부분 극동으로 화물을 운송하기 때문임. 그로 인해 컨테이너 트래픽이 증가하고, 물류 체인의 모든 단계에서 컨테이너 처리 시간이 증가하고 있음
- 컨테이너 선박에는 공간이 부족할뿐더러 항만에서 하역을 기다리는 선박들이 계속 대기하고 있으며, 컨테이너를 철송을 통해 러시아 중심부로 인도하기 위한 대기 시간도 증가하였음
- 극동지역의 컨테이너 혼잡 문제는 한국의 부산항에서도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최근 더욱 악화되고 있음
- 이에 따라 머스크는 9월 말 부산항 컨테이너 운송 문제를 검토하면서 고객인 화주들에게 부산과 블라디보스토크 해상무역항 간 수출입 컨테이너 운송 신청을 한 달 동안 중단하라고 통보함
- 이후 머스크는 최대 규모의 Maersk Panamax급 선박의 주간 운항 횟수를 제한한 것으로 알려짐

■ 현재 항만의 혼잡 문제는 원인이 복잡해 쉽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

- 미국에서는 현재 52척의 선박이 롱비치(Long Beach)항 앞에서 정박하며, 평균 2주 이상 지연되고 있는 등 세계 컨테이너 운송업체의 99.9%가 체선 등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음
- 컨테이너, 선사, 항만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어 선박이 기항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 혹은 컨테이너 처리 시간 등 지연 시간이 늘어나면서 비효율성 역시 증가하고 있음

- 머스크 사장은 현재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 당분간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함
 - 또한 머스크 사장은 현재 컨테이너 화물 운임이 15,000달러에 달하는 것은 비정상적이지만, 팬데믹 이전 중국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의 운임이 2,000달러였다는 것 또한 비정상적이라고 설명했다
- 러시아 컨테이너 시장과 글로벌 물류의 문제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강조함
- 머스크의 모든 선박들은 이미 가동되고 있고, 추가로 빌릴 수 있는 모든 선박을 인수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요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, 이는 성장을 저해하는 큰 요인임

■ 내년 하반기나 2023년에 화물 시장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

- 머스크 라인 사장은 “2020년에 발주한 신규 컨테이너선이 출항하는 2023년에는 세계 시장의 변화가 예상된다.”며 대유행의 여파가 끝나고 지금까지 중국에서 수출할 수 없던 누적 화물이 모두 안정적으로 선적되어 상황이 균형을 찾을 것으로 기대됨을 밝힘
- 머스크 라인의 예측에 따르면 2021년 세계 컨테이너 시장의 성장률은 7~8% 수준으로 예상됨. 이 회사는 “2022년의 시장 성장률은 유지될 것이지만, 항구 혼잡이 감소하여 톤수 회전율 가속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, 현재 전 세계 운송용량의 약 15%의 혼잡으로 인한 손실이 회복되면, 우리는 추가적으로 15%에 달하는 운송 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 것”이라 설명함

김엄지 연구원,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·극지연구실
(umjikim@kmi.re.kr/051-797-4776)

백가희 실습생,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·극지연구실

러시아 철도 현대화 사업에 따라 운행구간 화물량 증가

■ 바이칼-아무르 및 시베리아 횡단 철도 현대화 전략의 1단계 성과^{a)}

- 1단계의 종료 시점인 2020년 말 기준 바이칼-아무르(BAM) 및 시베리아 횡단(Transsib) 철도의 석탄 수송량은 총 1억 4400만 톤(2018년 초 대비 16.7% 성장)에 달했고,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수출하기 위한 석탄의 양은 최대 1억 900만 톤(5% 성장), 서남부 방향으로 운송되는 석탄의 양은 9,880만 톤을 초과해 기존의 목표 처리량이었던 1억 2,490만 톤을 초과 달성함
- 2020년, 노바야 차라-케멘(Novaya Chara-Kemen), 콜로드니-키체라(Kholodny-Kichera), 티야-세베로바이칼스크(Tyya-Severobaikalsk), 술반-날레드니(Syulban-Naledny), 키렌가-오쿠나이스키(Kirenga-Okunaisky) 구간에 복선철도 인입선 건설공사가 종료됨
- 틴다(Tynda), 셀곤(Selgon), 노바야 차라(Novaya Chara), 킬록(Khilok), 볼로차예프카-2(Volochaevka-2), 리토프코(Litovko), 자멘(Dzharmen) 역에 20km 이상의 역 선로가 설치됨
- 하바롭스크(Khabarovsk), 스몰라니노보(Smolyaninovo), 니야(Niya), 우룸(Uryum) 역에서 4개의 견인 변전소가 가동되었고, 140km 이상의 철도 노선이 전철화되었음
- 효율적인 라우팅, 연결된 열차의 구성, 기반 시설의 수리 작업 기술 향상, 각 열차의 무게 증가로 인해 전체 화물 용량 수치가 약 1,000만 톤 증가했음

■ 전략의 2단계는 2021년 7월부터 2024년까지 분기별로 추진 예정

- 시베리아 횡단 열차(Transsib)의 슈코토보-스몰라니노보(Shkotovo-Smolyaninovo) 구간을 우회하여 1만 3,000km의 추가 메인 트랙, 바이칼-아무르(BAM)에 27개의 사이딩(철도 저속 운항 보조 장치)를 건설할 계획임
- 24개 역과 6개의 교차로가 재건될 예정이며, 829km 길이의 볼로차예프카-콤소몰스크-소르티로보치나-바니노(Volochaevk-Komsomolsk-Sortirovochny-Vanino)에 전력을 공급하고, 다양한 구간에서 견인 전원 공급 장치를 강화할 계획임
- 2단계 철도 건설에는 10개의 철도군 조가 투입될 예정이며 국방부 언론에 따르면 인공 구조물 건설 및 선로 상부 구조, 올라크-페브랄스크(Ulak-Fevralsk)의 노반 형성에 참여할 병력과 기술적 수단 이전이 이미 시작되었음
- 2024년까지 올라크-페브랄스크(Ulak-Fevralsk) 구간의 운반 능력을 2,770만 톤에서 5,010만 톤으로 증가시켜야 함

- 레나-보스토치나야-탁시모-노바야 차라(Lena-Vostochnaya-Taksimo-Novaya Chara) 구간의 처리 능력을 하루 22쌍의 열차에서 2024년까지 43쌍으로, 노바야-차라-틴다(Novaya Chara - Tynda) 구간에서는 22쌍에서 44쌍, 네룬그리-틴다(Neryungri-Tynda) 구간은 13쌍에서 27쌍, 틴다-울락(Tynda-Ulak) 구간 22쌍에서 29쌍, 틴다 - 바모프스카야(Tynda - Bamovskaya) 구간은 19쌍에서 51쌍으로 증가시켜야 함
- 2022년 동부 매립지의 총 운반 능력은 연간 1억 5,800만 톤에서 2024년, 1억 8,000만 톤이 될 예정임

■ 바이칼-아무르(BAM) 및 시베리아 횡단 철도의 주요 화물은 '석탄'

- 향후 10년 안에 가장 주목해야 할 프로젝트는 사하 공화국, 카카시아(Khakassia) 공화국, 크라스노야르스크 및 아무르 지역의 석탄 생산량을 늘리는 프로젝트임
- 이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각각 1,000만 톤 이상의 석탄을 추가 생산해 수출할 수 있으며 엘긴스코예(Elginskoye) 유전의 생산량을 2,300만 톤 이상 확장하고, 콜마르(Kolmar), 이나글린스카야(Inaglinskaya) 광산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어 이 지역을 운행하는 철도 수송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임

김혜영 리포터,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
(gpdud027@hufs.ac.kr)

참고자료

a) <http://www.morvesti.ru/analitika/1687/91727/> (2021.10.28. 검색)

야쿠티야 공화국, ‘크리에이티브 클러스터’ 집중 육성

■ 야쿠티야 주지사, ‘Labor Quarter’ 프로젝트를 사회개발계획에 포함 제안^{a)}

- 최근 열린 러시아 극동 사회경제 발전에 관한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야쿠티야의 아이센 니콜라예프(Aisen Nikolaev) 주지사는 야쿠티야의 ‘Labor Quarter Cluster’ 프로젝트를 사회개발계획에 포함하기를 제안함
- “‘Labor Quarter Cluster’는 야쿠티야 크리에이티브 산업의 중추 프로젝트로, 2022년 4월에 착수 예정임
- ‘Labor Quarter’는 극동 지역 최초의 대규모 크리에이티브 클러스터로 애니메이션, 영화, 컴퓨터 그래픽, 사진·비디오 제작, 블로깅, 마케팅·브랜딩, 디자인, 시각·공연 예술, 교육 등의 분야 기업을 클러스터로 유치하는 사업임

■ 총 사업비 9억 4,010만 루블 중 야쿠티야에서 5억 2,720만 루블을 투입

- 유리 트루트네프(Yuri Trutnev) 러시아 부총리는 “야쿠티야는 클러스터 건설을 위해 4억 1,200만 달러를 지원받을 것이며, 계획 수정으로 예산자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지출되고 절약된 자금이 추가 시설로 재배치될 것”이라 밝힘
- 그는 클러스터에 할당된 연방 기금으로 엘리베이터 설치, 내·외부 마감, 보일러 및 엔지니어링 시설 건설, 디지털 콘텐츠 제작 전문 스튜디오를 위한 기술 장비, 공연 및 전시장, 공공 시설 및 조경 지역 설치 등의 건설 공사가 완료될 것이라고 언급함
- 니콜라예프 주지사는 “현재 70개 이상의 클러스터 입주기업과 예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, 2025년까지 입주기업을 150개로 늘리고, 일자리도 1,250개로 확대할 계획”이라고 밝힘

김엄지 연구원,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·극지연구실
(umjikim@kmi.re.kr/051-797-4776)

백가희 실습생,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·극지연구실

러 렘스탈, 소비츠키야 가반 항만에 LPG 환적 터미널

■ 렘스탈(Remstal)사는 소비츠키야 가반 항만에 LPG 환적 물류단지 건설^{a)}

- 유리 트루트네프(Yuri Trutnev) 러시아 연방 부총리는 소비츠키야 가반(Sovetskaya Gavan) 항만에 LPG 환적을 위한 물류단지를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
- 액화석유가스 환적을 위한 물류단지는 동해 북타 에게(Bukhta Egge) 만의 타타르 해협 연안에 위치함
- 프로젝트의 총 비용은 213억 루블이며, 투자자는 이미 68억 루블을 투자하였음
- 트루트네프는 장관은 “새로운 인프라 건설 시 투자자는 적절한 특혜를 누려야 한다.”며 극동 북극개발공사에 투자자가 자유항 제도를 활용해 관련 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함

■ 액화 탄화수소 가스(프로판, 부탄, SPBT가스)의 입고, 임시 저장, 하역용

- 이 단지를 이용하는 제품은 철도 탱크 차량으로 운반되어 임시 저장 창고에 공급되며, 아시아-태평양 국가로 수출하기 위해 해상 가스 운송선으로 운송됨
- 렘스탈 사의 총책임자(CEO) 리프카트 바드루티노프(Rifkat Badrutdinov)에 따르면 터미널은 러시아 태평양 연안에 있는 최초이자 유일한 터미널이 될 것임
- 터미널은 2023년 하반기부터 운영을 시작해 연중무휴로 운영될 예정이며, 화물 회전율은 연간 100만 톤에 달할 것임
- 그는 또 “2019년 12월부터 렘스탈 사는 자유항 입주기업이 되었으며, 이로 인해 프로젝트의 경제성이 크게 상승했다.”고 설명함

■ 그 밖에도 소비츠키야 가반 철도 재건 사업에 42억 루블을 투자할 계획

- 이 지역의 철도운송 물동량은 현재 연간 화물 약 46만 톤이며, 재건사업 이후에는 연간 1,000만 톤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임
- 초기 단계에서는 연간 화물 수송량을 최대 100만 톤까지 늘리고, 전력선, 광섬유 통신선, 터미널과 기차역 사이를 연결하는 철도선로도 건설하여 터미널 주변의 운송 효율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임

김엄지 연구원,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·극지연구실
(umjikim@kmi.re.kr/051-797-4776)

백가희 실습생,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·극지연구실

참고자료

a) <https://rus-shipping.ru/ru/infstruct/news/?id=45626> (2021.10.29.검색)

러시아, 수산업 현대화...해상 가공어선 100척 건조

■ 수산업 발전 위해 어류 해상 가공 가능 어선 100대 건조 예정¹⁾

- 러시아 일리야 셰스타코프(Ilya Shestakov) 수산청장이 최근 이탈리아 베로나에서 개최된 제 14차 유라시아 경제 포럼에 참석하여 어획물들이 부패하지 않고 사용 가능한 상태가 유지되는 어류 가공 가능 러시아 국내 선박 100대를 2025년까지 새롭게 건조할 예정이라고 밝힘

■ 수산업 현대화 프로그램으로 러시아 정부 예산을 집중적 투자

- 셰스타코프 수산청장은 현재 러시아가 지속가능한 어업 및 어류 제품 생산 모델의 혁신적인 전환을 위해, 효율성·안전·친환경 원칙을 기반으로 한 선박 및 어류 가공 역량 현대화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, 이는 산업 현대화 측면에서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함
- 아울러, 시행 중인 프로그램은 선박 및 연안 가공 발전, 환경 친화적 산업 발달, 러시아 내수 시장 내 수산업 접근성과 어류 품질 제고 등을 위해 투자금이 할당되고 있음
- 투자금은 2,130억 루블에 이르며, 이중 약 88%는 선박 건조 및 개보수를 위해 투입되는데, 현재 투자금을 기반으로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선박은 33척임
- 선박 건조가 완료된다면 수산업계에 새로운 선박이 등장하게 되는 셈인데, 이 같은 선박은 기존 선박 대비 선박 역량을 현저히 증대시켜줌. 특히 러시아 북측 수역에서는 80%, 극동지역 수역에서는 40% 정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

■ 프로그램 첫 사업으로 어류 가공공장 건설·수산물 어획량 증가 기대

- 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어업 현대화 사업으로 기존에 건설 계획된 24개 연안 어류 가공 공장 가운데, 20개는 이미 건설 완료되어 현재 가동되고 있음
- 한편, 러시아의 2020년 기준 수산물 어획량은 약 500만 톤에 이르며, 양식 생산량을 고려하면 전체는 530만 톤으로, 전 세계 5대 어획량 선도국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종묘 생산 및 치어 양식 기술이 뛰어나 자연산 수산물의 어획 증가세가 관찰되는 국가 중 하나임
- 특히, 러시아 수산업 분야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세부 분야는 수산 양식업인데, 최근 10년 동안 매년 10~15% 가량의 증가세를 보였으며, 올해 상반기에는 25% 정도의 성장세를 나타냈음
- 러시아 양식 어업 생산량은 2030년까지 61만 8000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, 정부의 수산업 현대화 조치가 수산물 증가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

유지원 연구원,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·극지연구실
(jwyoo21@kmi.re.kr/051-797-4765)

참고자료

a) <http://www.morvesti.ru/news/1679/92359/> (2021.11.03. 검색)



표. 2021년 9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(건화물 및 액체화물)

(단위: 백만 톤, %)

수역*	건화물	액체화물	합계	2020/2021 증감율
극동지역	12.38 (+2.7%)	6.19 (-2.7%)	18.57	+0.8%
북극해	2.89 (+2.0%)	5.02(-2.9%)	7.91	-1.4%
발트해	10.2 (+7.9%)	10.38 (-1.4%)	20.58	+2.8%
아조프-흑해	10.00 (+6.6%)	11.14(+0.3%)	21.14	+3.0%
카스피해	0.2 (-30.8%)	0.34 (+0.4%)	0.54	-12.9%
합계	35.67(+4.8%)	33.07(-1.3%)	68.74	+1.7%

* 주: 극동해역: 블라디보스톡, 자루비노, 올가, 포시에트, 나호트카, 보스토치니, 바니노, 소베츠키야가반, 데-카스트리스, 네벨스크, 홀름스크, 프리고로드노예, 마가단,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스키

북극해: 무르만스크, 칸달라크샤, 나리얀마르, 두딘카, 아르한겔스크, 오네가, 바란데이, 페벡, 사베타

발트해: 상트페테르부르크, 프리모르스크, 브보스크, 비소츠크, 우스트-루가, 칼리닌그라드

아조프-흑해: 노보로스스크, 겔렌지크, 투압세, 타간로크, 아조프, 로스토프 나 도누, 디망, 템류크, 카프카즈

카스피해: 아스트라한, 올라, 마하치칼라

** 주: 누적 물동량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

김영지 연구원,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·극지연구실
(umjikim@kmi.re.kr/051-797-4776)

소피아 센터원, KMI 러시아연구센터

참고자료

- a) <https://portnews.ru/news/318402/>(2021.10.15. 검색)
- b) <https://portnews.ru/news/319764/> (2021.10.15. 검색)

표. 2021년 8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출입 품목 규모

(단위: 천 달러)

EAEU 코드	품목	해외*		CIS**		합계	
		수출	수입	수출	수입	수출	수입
01-24	식료품 및 원자재	347,673.4	46,802.8	885.6	1,215.6	348,559.0	48,018.3
25-27	광물 제품	665,439.4	46,277.0	22,875.9	43,409.9	688,315.3	89,686.9
27	연료 및 에너지 제품	497,127.2	45,861.1	382.8	0.92	497,510.0	45,861.1
28-40	생고무 화학 제품	4,519.8	66,195.2	1,130.3	377.0	5,650.1	66,572.3
41-43	가죽원료모 피 제품	14.2	1,868.8	14.4	76.2	28.6	1,945.0
44-49	목재 및 펄프, 종이 제품	94,796.5	6,586.7	232.5	145.9	95,029.0	6,732.6
50-67	섬유·섬유제 품 및 신발	334.6	63,643.0	61.3	4,116.4	395.9	67,759.4
72-83	금속 및 금속 제품	18,321.4	59,017.6	920.3	3,077.4	19,241.7	62,094.9
84-90	기계류	10,851.8	589,084.6	1,591.0	2,267.2	12,442.8	591,351.8
68-71, 91-97	기타	308,070.6	55,283.7	40,659.5	312.5	348,730.1	55,596.2
	합계	1,450,021.6	934,759.4	68,370.8	54,998.0	1,518,392.4	989,757.4

*주: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

**주: 아제르바이잔, 아르메니아, 벨라루시, 카자흐스탄, 키르기스스탄, 몰도바, 타지키스탄, 우즈베키스탄

김엄지 연구원,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·극지연구실
(umjikim@kmi.re.kr/051-797-4776)

소피아 센터원, KMI 러시아연구센터

참고자료

a) [https://dvtu.customs.gov.ru/statistic/2021-god/operativnaya-informacziya\(2021.9.15. 검색\)](https://dvtu.customs.gov.ru/statistic/2021-god/operativnaya-informacziya(2021.9.15. 검색))

표. 2021년 8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입 규모

(단위: 톤, 천 달러)

EAEU 코드	품목	해외*				CIS**				합계			
		수출		수입		수출		수입		수출		수입	
		톤	천 달러	톤	천 달러	톤	천 달러	톤	천 달러	톤	천 달러	톤	천 달러
0302	냉장수산물	266	320.9	-	-	-	-	-	-	266.0	320.9	-	-
0303	냉동수산물	105,112	153,751.5	0	0.0	64	81.9	-	-	105,175.8	153,833.4	0	0.0
03031	연어	15,941	52,727.6	-	-	20	35.5	-	-	15,960.9	52,763.2	-	-
030331	광어	374	1,986.0	-	-	-	-	-	-	373.5	1,986.0	-	-
030332	가자미	924	851.0	-	-	-	-	-	-	923.8	851.0	-	-
030339	기타 넙치류	1,523	1,296.9	-	-	-	-	-	-	1,523.0	1,296.9	-	-
030351	청어	29,056	15,826.8	-	-	2	1.8	-	-	29,057.7	15,828.6	-	-
030363	대구	3,202	9,177.8	-	-	-	-	-	-	3,201.7	9,177.8	-	-
03036 70000	명태	34,248	33,968.2	-	-	39	40.3	-	-	34,287.2	34,008.5	-	-
03038 93	농어	2	5.9	-	-	-	-	-	-	1.6	5.9	-	-
030391	알류	1,131	119,388.0	-	-	-	-	-	-	1,131.2	27,226.5	-	-
030399	지느러미, 머리, 꼬리 및 기타 식용 어패류	260	557.3	-	-	-	-	-	-	260.3	557.3	-	-
0304	생선 필레	7,324	24,097.1	0	0.0	30	65.3	-	-	7,354.3	24,162.4	0	0.0

0305	훈제 생선, 생선 가루	11	11.3	0	0.0	0	0.0	-	-	11.2	11.3	0	0.0
0306	갑각류	4,552	134,541.8	0	0.0	-	0.0	-	-	4,552.4	134,541.8	0	0.0
030614, 030633, 030693	계	4,161	129,073.7	-	-	-	0.0	-	-	4,161.3	129,073.7	-	-
0307	조개류	2,152	8,334.7	-	-	0	1.6	-	-	2,152.3	8,336.3	-	-
03072	가리비	757	1,317.6	-	-	-	-	-	-	756.6	1,317.6	-	-
03074, 03075	오징어 및 문어	883	2,453.8	0	0.0	0	1.6	-	-	883.6	2,455.3	0	0.0
0308	수생 무척추 동물*	0	0.0	-	-	0	0.0	-	-	0.0	0.0	-	-
03081	해삼	0	0.0	-	-	0	0.0	-	-	0.0	0.0	-	-
03082	성게	0	0.0	-	-	-	-	-	-	0.0	0.0	-	-

*주: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

**주: 아제르바이잔, 아르메니아, 벨라루시, 카자흐스탄, 키르기스스탄, 몰도바, 타지키스탄, 우즈베키스탄

김엄지 연구원,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·극지연구실
(umjikim@kmi.re.kr/051-797-4776)

소피아 센터원, KMI 러시아연구센터

참고자료

a) [https://dvtu.customs.gov.ru/statistic/2021-god/operativnaya-informacziya\(2021.10.15. 검색\)](https://dvtu.customs.gov.ru/statistic/2021-god/operativnaya-informacziya(2021.10.15. 검색))